

第63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行政委員會會議錄

第2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9月27日(土) 午前10時

場 所 第2小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城北電話局訪問計劃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城北電話局訪問計劃案(金振權議員 發議) 1面

(10時05分 開議)

1. 서울特別市城北區城北電話局訪問計劃案(金振權議員 發議)

○委員長 安傑瑢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출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전화국방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한 행정위원회 김진권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振權 행정위원회 간사 김진권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0만 성북구민의 전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북전화국을 방문하여 전화, 팩시밀리, 텔렉스 등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우리 구민의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췌록 여러 위원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문개요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화국 방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傑瑢 김진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생략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성열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成烈委員 전화국은 사실 우리가 가서 그래도 몇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준비를 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물어 볼 것도 없고 여기서 상의를 해가지고 가서 대충 질문이라도 몇 번 하고 와야지, 그냥 행하니 갔다 오면 좀 맨승맨승한 것 같은데 그것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安傑瑢 그 말씀은 현재 정보통신 우리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말씀 내용과 같이 그런 사안이겠습니까라는 현재 우리 성북 관내 우리 지역주민들의 전화 가설 또 전화 일반 가설은 별 문제이겠습니까라는 공중전화 같은 건 또 무인전화기 같은 이런 수요자는 급증하는데 전화국에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북구민들의 민원을 우리가 다소나마 해결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전화국 방문을 해서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전화국 사정 실상이 이렇더라 하고 주민들께 안내 말씀이라

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방문의 차원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지들을 하시고 또 전화국에 가서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그런 궁금사항들을 간접적으로 물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운근위원님.

○高允根委員 고운근위원입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전화국 전신주가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신주를 옮겨달라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가서 우리 지역의 전신주를 전체를 점검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합당한 장소에 옮길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촉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安傑瑢 우리 고운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사항도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를 통해서 한국전력주식회사나 전화국을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 사안 같은 데는 제가 전화국에 체신주 이설요청을 해서 안 된 것 없이 바로 바로 해 주는 것을 내가 봐 가지고 그때 어떤 효과를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타동의 실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그것 잘 한 번 착안하셔서 그 말씀도 곁들여서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윤만환위원님.

○尹晩丸委員 윤만환위원입니다. 지금 류성열위원님과 고운근위원님 말씀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전화국을 한 번 방문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참 잘 왔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김진권 간사님께서 방문 계획 동의안에 하신 말씀대로 그 이상의 정말로 우리가 역울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서 현지에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질문하면 다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운근위원님 말씀대로 본위원이 지금 현재 이번에 전신 전화 이설 못하고 있어요. 전화국이나 한전에서 이설을 안 해준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은 바로 연락만 하면 바로 해 줍니다. 그러나 그 동네 실정에 편의에 따라서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조금

어려운 지역이 있을 겁니다. 저도 현재 몇 군데를 이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알아 보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점 전화국이나 한전 같은 데서는 바로바로 신청을 하면 바로 이설을 해 줍니다. 그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傑瑢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 전화국 방문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3分 散會)

○出席委員 14人

安 傑 瑢	金 振 權	高 允 根
丘 在 永	金 壽 榮	徐 化 錫
宋 夏 星	申 宗 鉉	柳 成 烈
俞 鎮 武	尹 晩 丸	尹 弘 老
崔 桂 洛	崔 東 煥	

○缺席委員 1人

朴 時 俊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崔 石 根
---------	-------